

가금의 내외부 기생충 구충



김 영 섭
(서울농업대학 교수)

- 제 1 회 : 내부 기생충과 그의 구충법
- ◎ 제 2 회 : 외부 기생충과 그의 구충법

닭의 기생충병은 다른 가금의 전염성 질병과 같이 그 증상이 현저하게 눈에 잘 띌 정도로 초기에는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각종 기생충의 증란, 오시스트에 오염된 흙이나 사료, 음료수 또는 곤충 등의 매개로 닭에 섭취되면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 체내에서 일정기간 발육 성장하게 되어 차차 만성적으로 피해를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자의 닭의 외모·배설물 등에 대한 관찰이 기생충병의 조기 발견과 구충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닭똥에 점액과 육변이 있거나 짐막이나 육관에 빈혈이 나타나면 닭에 회충이 기생된 증거이며, 또는 혈변과 점혈변이 유충추에서 나타나면 콕시듐을 의심해야 하고, 유추가 각혈 폐사하거나 녹색변이면 류코사이토준병의 증거가 된다. 특히 습윤한 기후·토지·육추기 등에서 고온일 때 밀사를 하거나 육추기내의 온도가 낮을 때 바닥이 습하기 쉽고 증란의 발육에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난방장치를 한 제사에서는 실내 온도와 계분이 부패로 인한 열에 의하여 증란이 부화되어 감염원이 되는 경우 등의 감염을 용이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우리 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내부 기생충 종류별로 구충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표 1〉 증란으로부터 감염형이 될 때까지의 시간

기생충명	시	간
닭콕시듐	25°C에서	48시간이면 외계에서 포자형성이 된다.
닭 회 충	여름에는 10~12일, 무더운 여름에는 1주일이면	자충형성란(감염기란)으로 발육된다.
닭맹장충	여름에 1주일이면	자충형성란으로 발육된다.

1. 콕시듐증

닭콕시듐의 예방치료제는 사료에 약물을 첨가해서 먹이게 되며 첨가 약물의 성질에 따라서 조절 사용되고 오늘날에는 대계 사료에 배합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치료제도 국내 생산품이 각종 명칭으로 제조되어 나오고 있으므로 양계가의 사용 경험 효과에 따라서 선택 사용하는 것이 좋을 줄 믿는다. 여기서 외국 약품을 소개하면 표 2와 같다.

2. 류코사이토준증

이 기생충병은 “닭겨모기”가 흡혈할 때 원충이 감염되어 발병되므로 이 닭겨모기가 발생되는 6~9월에 계사 창문에 모기장을 망목(網目)이 서로 엇갈리게 두겹으로 장치하여 침입을 막고 이미 들어온 닭겨모기는 가정용 모기약을 산포하여 죽이는 것이 좋다.

치료 약물은 썰파제를 0.005~0.025% 수용액으로 만들어 먹인다.

3. 히스토모나스증(흑두병)

〈표 2〉 닭콕시름 예방 치료제

약 품 명(제약회사명)	사 용 법	성 분
아바—셀파 (Osborn)	물 4,000cc에 30g을 타서 맹장콕시름 및 장콕시름에 2일 또는 3일간 먹인다.	셀파메라진, 셀파퀴녹싸린, 셀파다이아졸
에스. 큐. 엑스. (Osborn)	물 4,000cc에 30~45g을 타서 병아리의 맹장콕시름 및 장콕시름의 예방치료제로 사용한다.	셀파퀴녹싸린
올 솔 (Research)	물 4,000cc에 1온스를 타서 사용한다.	셀파메라진, 셀파다이아졸, 셀파피리딘
슈이살 용액, 정제 (Haver-Lockhart)	용액 : 철면조—물 12,000cc에 30cc를 타서 10일간 먹인다. 병아리—물 12,000cc에 30cc를 녹여서 5일간 또는 24,000cc에 녹여서 2일간 먹인다. 정제 : 병아리—물 4,000cc에 2정을 녹여 5일간 또는 1정을 녹여 2일간 먹인다.	알사니레이트 소—다 셀포카보레이트 소—타 포도당 및 솔비톨
바이후란 (Hess & clark)	사료에 혼합되어 판매	사료 배 파운드 당 함량 나이트로후라존 50gm 후라조리논 7.5gm
그리카마이드 12% (Merck)	부로일러 사료에 0.006%, 기타는 0.002%로 섞어서 먹인다.	4,5—아이미다조리디카복사마이드
나이카브 (Merck)	사료에 첨가한 것은 0.008%이고 부로일러에는 0.0125%로서 먹인다.	나이카바진

이 기생충병은 6월 상순~8월 상순에 다발하며 특히 닭맹장충란에 의하여 전염되기 때문에 닭맹장충의 구충이 제일 중요하다.

치료 약물로는 “헵사이드”를 물에 0.02%로 만들어 7~10일간 먹이면 유효하다.

4. 푸라스모돔증(닭마라리아)

이 병의 예방에는 푸라스모돔 원충을 매개하는 모기를 박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치료할 때는 원충의 발육환(發育環)에 있어서 출현되는 여러 형태·시기·원충의 종류 등에 따라서 치료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약물로서는

- ①적내형(赤內型)—키니네, 아미노크리딘, 크로로퀸
- ②적외형—아미노퀴놀린
- ③유성생식체—디아미노피리미딘 등이 응용된다.

5. 회충증

구충제로서는 퀘노지아진·피페라진제제가 많이 응용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약품을 소개한다.

- ①엘티헬턴릭 파우다(Diamond)를 성계 50마리

당 2온스를 사료에 섞어서 3~4일간 먹이면 유효하다.

②아래구틴(National)을 4,000cc의 물에 1숫갈씩을 타서 성계 20수에 2일간 먹이면 유효하다.

③이 에프 에이—피아이피(Osborn)를 4,000cc의 물에 1온스를 타서 6~12주령추 100수에 먹이며, 12주령 이상의 100수에는 24,000cc에 1온스를 타서 먹인다.

6. 맹장충증

닭맹장충은 많은 수가 닭에 기생하여도 별로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구충을 소홀히하기 쉽다. 그리고 이 기생충의 알이 흑두병을 전염하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 기생충이다.

①엔—톤 파우다(Jen-sal)를 닭 100수당 4숫갈씩을 사료에 섞어서 먹인다.

②퀘—닉스(Osborn)를 병아리(100수)와 성계(50수)에 2온스를 사료에 섞어서 먹인다.

③퀘노지아진을 병아리 및 철면조에 0.5gm을 사료에 섞어서 먹인다.

④ 피페라진용액(Corn Belt)을 성계 40수당 30cc를 사료에 섞어서 먹인다.

⑥피젯트엔정(Osborn)을 중추에는 1수당 1/2

경, 대추 및 성계는 1정, 칠면조는 2정을 먹인다.

7. 모체충증

닭모체충은 6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 2종류는 중간숙주인 지렁이에 의해 감염되나 나머지 4종류는 직접 감염된다. 특히 평사하는 닭이 지렁이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란은 소독제에 저항력이 커서 용이하게 사멸되지 않으나, 고온, 건조에 약하고 공기 중에서 24시간 건조시키면 사멸된다.

치료제는 아직 확실한 것이 없으나 피페라진 1.0~0.5g/kg, 피페라진·뮌노지아진·비치오놀의 혼합제 0.5g/kg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닭과 칠면조는 사료 중에 5%의 유허미분말을 섞어서 약 3주 투여로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염화탄소 0.125~0.25cc/kg를 2~3주 간격으로 2회 먹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는다. 약은 캡슐로 넣어서 직접 소낭내에 넣어야 한다.

8. 촌충증

닭에는 촌충의 기생이 많으며 지금까지 닭에 기생되는 촌충의 종류는 10종 이상이나 알려져 있다. 촌충의 발육에는 중간숙주(中間宿主)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가을을 중심으로 다발한다. 그리고 중간숙주를 섭취하는 관계로 방사(放飼) 또는 평사하는 닭에 촌충의 기생이 많으며 빠다리 및 케이지 사육의 닭에는 비교적 기생이 적다.

<표 3> 닭촌충의 종류, 크기 및 중간숙주

종 류	충 체		중간숙주
	체 장(mm)	체 폭(mm)	
방형 촌충	250~300	3.0~4.0	개미
극구 촌충	200~250	2.0~4.0	개미
유윤 촌충	50~130	1.5~3.0	바구미
가지와라촌충	120~150	2.0~2.5	개미
닭막양촌충	90~120	1.0~1.2	분식성갑충
닭유구촌충	5~16	0.3~0.4	갑충
닭무구촌충	1~1.5	0.1	
설상촌충	2~2.5	0.2~0.3	지렁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 닭에 기생되는 촌충의 기생율 통계 및 종류가 나온 것이 없으나 본인의 경험으로는 방형 촌충(사각 촌충)과 극구 촌충(결절 촌충)의 기생이 있었으며 특히 방형 촌충의 기생이 많은 것 같다.

① 방형 촌충 및 극구 촌충

먼저 계사 주변에 서식하는 “개미”를 없애서 닭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충 약물로는 헥사크로로펜 및 디크로로펜이 닭촌충 구충약으로서 사용되며 용량은 30mg/kg가 구충 적량으로 유효하다. 투약 후 3~7일 후에 일과정의 산란율의 저하가 있으며 200mg/kg 이상 투여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또한 체중 1kg당 0.2~0.3g의 비치오놀을 5~7일 간격으로 2~3회 연속 투여하면 100%의 완전 구충이 가능하다.

P. 35에서 계속

컬 계획이나 이밖에 국내산 어분이 비교적 원활히 유통되고 있으므로 수급상 차질은 없을 것이다.

대두박 : 페루산 어분 수입 가격 앙등은 대두박의 소비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나 미국 시장의 대두박 시세의 보합으로 계속 안정된 가격으로 5~7월까지 3,000톤이 순조로히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합사료 : 원료 사료의 수급 원활로 배합사료 생산이 순조로울 것으로 본다.

<표 3> 지역별 배합사료의 공장도 가격 (1970. 5. 15일 현재)

사료명 지역별	공장도 가격						
	유주용	중주용	산란용 보통용	산란용 상용	부로일 전용	부로일 후용	부로일 후용
서울	39~42	35~38	30~33	32~38	41~44	39~41	
인천	40	34~36	30	33~35	40~43	39~42	
청주	40	34	30	30	—	—	
대전	40~42	32	30	32	42	38~40	
군산	42~43	32	31	32	42	38~40	
대구	36	35	30	30	—	—	
부산	38~40	30~34	27~29	28~30	40~43	36	